



**스위스재보험, 2009년 3분기 3억 3천 4백만 스위스프랑 순이익 기록
AA 등급 초과자본, 60억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증가 예상
우수한 언더라이팅 실적 및 재보험 사이클 관리에 초점 지속**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9년 11월 3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3분기 3억 3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AA 등급 초과자본은 60억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핵심 사업부문은 꾸준히 견실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위험 투자 부문(Legacy portfolio)의 위험축소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CEO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9년 3분기 자사는 핵심사업의 우수한 언더라이팅 실적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꾸준한 위험축소를 통해 재무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지난 9개월동안 자사의 AA 등급 초과자본은 60억 스위스프랑으로 상당 규모 개선되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있다.”

자기자본의 상당한 증가

스위스재보험은 작년 동기 3억 4백만 스위스프랑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09년 3분기에는 3억 3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번 실적은 회사채 헤지에 대한 시가평가 손실 7억 6백만 스위스프랑과 주로 증권화 상품 포트폴리오에서의 감액손실 2억 6천 3백만 스위스프랑의 영향을 받았다. 주당 순이익은 0.97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다.

자기자본은 2009년 9월말 기준 24억 스위스프랑 증가한 262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증권화 상품, 회사채 및 국채의 시가평가에 힘입어 미실현투자순이익은 28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 시장의 부정적 움직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2009년 2분기 -7.4%를 기록한 연간 자기자본수익률은 6.1%를 기록하였다. 보통주의 주당 장부가액은 전분기 말 60.7스위스프랑 대비 11.5% 증가한 67.6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다.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9월말 기준 AA 등급 초과자본이 60억 스위스프랑 이상으로 향상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핵심사업의 견조한 실적

손해보험 부문의 영업이익은 2008년 3분기 6억 8천 5백만

스위스프랑에서 2009년 3 분기에는 9억 9천 8백만 스위스프랑으로 증가했다. 합산비율도 작년 동기대비 99.6%(할인을 적용 전 97.4%)에서 84.5%(할인을 적용 전 82.7%)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은 부분적으로 2009년 3 분기에 자연재해가 적게 발생한 덕분이기도하지만, 스위스재보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언더라이팅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보험 부문은 작년 동기 7천 9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09년 3 분기에는 3억 8천 8백만 스위스프랑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지급률도 작년 동기 대비 91.5%에서 2009년 3 분기에는 80.2%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상당한 개선은 2001년 링컨 내셔널(Lincoln National)과의 재보험계약의 중재 결과가 우호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 생명보험 부문에서의 양호한 사망률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산운용 부문의 투자 수익률은 작년 동기 2.8% 대비 2009년 3 분기에는 1.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저위험 및 단기 자산으로의 투자 전환, 금리하락, 회사채 헤지에 대한 시가평가 손실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영향은 자기자본 증가에 따른 기초자산의 시가 개선을 상쇄시켰다.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의 증감을 포함한 투자자산에 대한 총수익률은 작년 동기 -1.8% 대비 2009년 3 분기에는 14.3%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스위스재보험은 헤징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고위험 투자 부문(Legacy) 위험축소에 상당한 진전

스위스재보험은 금융재보험(Financial Guarantee Re) 부문의 위험 축소 노력으로 해당 위험의 장부상 규모는 2008년 말 이후 68% 감소하였다. 또한 3 분기에는 증권화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위스재보험은 종전의 구조화 신용디폴트스왑(SCDS)에서 일부 주식을 매도, 2억 2천 1백만 스위스프랑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고위험 투자부문(Legacy) 부문은 2009년 3 분기에 2천 3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

효율성 프로그램, 계획보다 앞서

구조조정으로 얻는 순비용절감 효과(구조조정 비용 반영 후)는 2009년 기준 목표 금액인 1억 스위스프랑보다 훨씬 높은 1억 5천만에서 2억 스위스프랑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스테판 리페는 “스위스재보험의 전망은 고무적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자사의 자본력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사업의 핵심기반인 언더라이팅 실적은 매우 우수하며 고위험 투자부문(Legacy portfolio)의 위험축소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수한 언더라이팅 실적은 수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으로 자사의 언더라이팅 접근방식이 체계적임을 입증한다”고 말을 맺었다.

리페는 “현재 우리는 1 월 갱신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경화 필요성을 나타내는 조짐들이 있으나 산업자본이 회복되고 대규모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경화가 부분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우수한 재보험 실적과 검증된 언더라이팅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갱신 시즌에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 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 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